

칭화대 벤처단지, 인천송도 입주 MOU

칭화홀딩스, 포스코엔지니어링 한국뉴욕주립대 CKT 와 MOU 체결

조용성 기자(yscho@ajunews.com)

| 등록 : 2014-11-26 14:30 | 수정 : 2014-11-26 14:30

아주경제 베이징특과원 조용성 기자 = 베이징(北京) 중관촌(中關村)에 위치해 있는 중국 벤처기업의 요람인 칭화(淸華)과기원이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입주할 계획이다. 중국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나, 한국진출을 원하는 중국 벤처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칭화과기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칭화홀딩스는 26 일 베이징에서 포스코엔지니어링,

송도에 위치해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, 부동산개발업체인 CKT 와 함께 '인천 송도 칭화과기원 (중국 칭화대학 사이언스파크) 설립' MOU 를 체결했다. MOU 체결에 참여한 4 개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

<http://image.ajunews.com/content/image/2014/11/26/20141126142901423865.jpg>

사업은 2 단계로 추진된다.

우선 내년부터 기존의 건물을 이용해 칭화과기원의 업무가 시작된다.

동시에 대지면적 3 만 5000 m² 에 총 건축연면적 20 만 m² 규모의 복합벤처단지를 2019 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. 2 단계 사업은 2025 년까지 완료된다. 총사업비로 5000 억원이 투자된다.

중국의 명문대인 칭화대가 운영하는 칭화과기원은 중국 전역에 30 여개의 분원을 지니고 있으며 설립된지 20 년된 벤처파크이다. 칭화과기원에는 약 400 여개 중국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다. 이 중 30 개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.

칭화과기원에 입주해 있는 ICT, BT, 에너지/환경 벤처기업과 다국적기업을 비롯해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송도 칭화과기원에 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.